

#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1회 한

#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

# BEETHOVEN AND BEETHOVEN

피아노  
김준형

## 베토벤과 베토벤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in G Major, Op.58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가장조  
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04.19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곽진오  
김희련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노루그룹

EG

풍산

말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K2Webtech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골프존

GFS

브루크너 Circle

윤정웅

김석수

슈베르트 Circle

신승일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김일규

함성익, 최영애

베토벤 Circle

에스앤아이

엔피코리아

한수향

쇼팽 Circle

다진

이경혜

송백규

문형주

안정근

모차르트 Circle

김원호

내자인

서석호

신영만

유애리

이근혁

이성재

전홍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하이든 Circle

고윤영

계양수치과

권영성

권용관

김기태

김성렬

김영기

김은주

김종혁

김종훈

박진형

백방미

봉옥법률사무소

유재천

이미영

이숙희

이윤희

이응돈

장윤정

조백일

조수린

최상욱

코스모엠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 송)’은 지휘자 함성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성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성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성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사회공헌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성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 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 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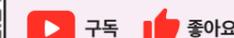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Symphony S.O.N.G  
T.02-549-0046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http://symphonysong.com



심포니 송 YOUTUBE  
검색: 심포니송



# 지휘자 함신익의

# 열정과 사명



###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

함신익의 여정은 평탄한 길을 걷는 여행가보다는 끊임없이 험준령에 도전하는 등산가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와 가깝다. 소년 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음악감성을 깨우치고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대한 꿈을 꾸었다.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며 혼신을 다해 빠르게 달리는 축구에 흥미를 가졌다. 지금은 매일 같이 산에 오르며,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음악과 축구와 자연은 자연인 함신익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주제이자 요소가 되었으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으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연주자들과는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 소금 같은, 보석 같은 지휘 능력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형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 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을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자크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샤프테페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 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 기적의 지속가능한 성장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바 있다.

2014년 창단된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 피아니스트 김준형



###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국내에서 몇 안되는 민간 오케스트라와 좋은 기회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심포니 송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 독일에서 유학생활에서 얻는 음악적 영감

요즘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심도있는 음악 이야기까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생각 정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연주 계획

올해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상주 음악가 연주들에 집중할 예정이고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김준형은 영감에 가득 찬, 생기 넘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연주를 들려주었다. ... 꽤나 까다로운 독주 도입부를 매혹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1악장에서는 지극히 섬세하게 짜인, 모든 프레이즈에서 명료하면서도 반짝이는 연주가 이어졌다.”

「수도이체 자이퉁 Süddeutsche Zeitung」

“침착하고 확고한 장악력으로 그는 오케스트라와 순수하게 소통하며, 매우 섬세하지만 다양한 움직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 오로라 같은 자신만의 음향 공간을 창조하며, 그는 연주를 보이지 않게 이끄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와 완전히 어우러졌다.”

「클래식 호이테 Klassik Heute」

2022년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며 ‘차분함과 노련함을 고루 갖춘 음악가’로 찬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김준형은 일찍이 국내에서 테너이저콩쿠르, 한국쇼팽콩쿠르, 삼익자일러콩쿠르, 한국리스트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7년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센다이 국제 음악콩쿠르 6위와 오르후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4위를 수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 청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준형은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하였으며, 덴마크 보른홀름 뮤직 페스티벌 초청을 비롯하여 슈바르츠발트 페스티벌, 슈베칭어 SWR 페스티벌,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에서 연주하였으며, 뮌헨 헤르쿨레스홀, 프린츠레겐텐 극장, 바이에른 님펜부르크 궁전, 슈베칭엔 궁전 등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지의 저명한 공연장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센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르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캄머 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형은 정경록, 임종필, 한유경을 사사하며 예원학교 졸업,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하여 뮌헨 국립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22년 예원-예고를 빛낸 인물상을 수상했다. 현재 안티 시랄라 사사로 뮌헨 국립음대 현대음악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김준형은 2024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선정되어, ‘업편소설’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트비히 판 베토벤



### Piano Concerto No.4 in G Major, Op.58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작품번호 58

- I. Allegro moderato ..... 적당히 빠르게
- II. Andante con moto ..... 보통 빠르기로 움직임
- III. Rondo (Vivace) ..... 론도: 아주 활기차게

##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트비히 판 베토벤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번호 92

- I. Poco sostenuto - Vivace ..... 포코 소스테누토 - 매우 빠르게
- II. Allegretto ..... 조금 빠르게
- III. Presto ..... 매우 빠르게
- IV. Allegro con brio ..... 힘차고 빠르게

Ludwig van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작품번호 58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아울러 수많은 불후(不朽)의 명곡을 남긴 독일 클래식 음악의 거장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1806년 말경 완성된 그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은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Piano Concerto No. 5 in Eb major, Op. 73)와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이다. 베토벤은 1800년대 초반 음악가로서 청력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좌절감과 내적 갈등이 심하였다. 급기야 1802년 겨울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Heiligenstadt Testament)`를 쓰고 생을 마감하려는 시도마저 하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운명의 가혹한 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인간의 가치와 의지를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펼쳐나간다. 이 곡은 이러한 때를 기점으로 쓰인 곡으로 이 시기에 그는 월광 소나타(Piano Sonata No. 14 in C# minor, Op. 27-2), 발트슈타인 소나타(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열정 소나타(Piano Sonata, No. 23 in F minor, Op. 57), 현악사중주 라주모프스키(String Quartet “Razumovsky”), 바이올린 협주곡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교향곡 4, 5, 6번등의 명곡을 쓰게 된다. 모차르트나 비제와 경우와 같이 소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직관적 영감(靈感)을 가지고 작곡하던 그의 거의 마지막 시기가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철저한 음악논리와 이성으로 계산된 감성과 구조를 미학적(美學的)으로 풀어갔다. 특히 운명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그의 운명 교향곡과 작곡 시기가 겹치는데 정확히는 이 협주곡 작곡기 중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운명 교향곡이 착상되었다.

이 협주곡은 고전파 협주곡의 전형(典刑), 즉 오케스트라에 의한 두 주제의 소개 이후 독주가 등장하는 패턴을 깨고 솔로악기가 먼저 시작하는 파격(破格)을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그것이 단 다섯 마디 동안 주제 동기(motive)만을 제시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 상큼한 제시 뒤 오케스트라가 고전의 전통을 따르며 소나타 형식의 두 주제를 소개한다. 2악장의 선 굵은 진지함과 철학적인 질문을 제외하면 곡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밝다. 특히 3악장에서 표현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총명한 기쁨은 청력을 잃은 비운(悲運)의 작곡가가 흘린 아픈 눈물을 연상하기 힘들 정도로 역동적이다. 곡 전체의 구조적인 메시지가 눈에 띄는데 1악장에 등장하는 젊고 건강한 예술가의 모습이 2악장에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맞이하며 고뇌하다가 3악장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운명 교향곡 마지막 악장에서의 예언적(豫言的) 승리의 선언과 다소 일맥상통(一脉相通)한다. 다만 그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곡에서는 천진난만한 기쁨에 주목하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대에는 큰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1836년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에 의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사실 이 곡 이전에도 교향곡 1번, 3번, 월광 1악장 등에서 전통적인 형식을 파괴한 전례(前例)가 있기에 “파격” 자체가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분명하고 간결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가 파격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주곡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이 시기에 쓰인 그의 다른 작품에서 보인 승리의 휴먼드라마와는 질적으로 다른 순수한 기쁨의 표출(表出)에 있다. 협주곡과 교향곡 시리즈 중에서 유일한 사 장조곡인데 전통적으로 사 장조 조성은 전연 내지는 유쾌함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특히 당대

Ludwig van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Beethoven's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was composed in 1806. The premiere was made in March 1807 at a private concert of the home of Prince Franz Joseph von Lobkowitz. The Coriolan Overture and the Fourth Symphony were also premiered in that same concert. However its public premiere took place at a marathon concert organized by Beethoven at Vienna's Theater an der Wien on 22 December 1808. The program included the world premieres of Beethoven's Choral Fantasy and Symphonies Nos. 5 and 6, the Vienna premiere of the Piano Concerto No. 4, and excerpts from other works by Beethoven - more than four hours of performance.

After its first performance, the piece was somehow neglected until 1836, when it was revived by Felix Mendelssohn. Today, the work is widely performed and recorded, and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entral works of the piano concerto literature along with his Fifth piano concerto “The Empe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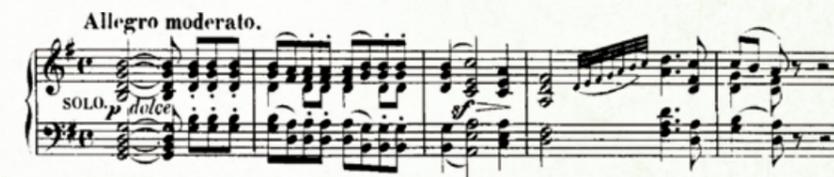
The beginning is one of the most memorable of any concerto. Rather than allowing the orchestra to have

명망 높은 피아니스트로서 세상을 주름잡던 37세의 젊은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곡 이후로는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서 초연(初演)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는 연주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청천벽력(青天霹靂) 같은 슬픈 현실 앞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협주곡이 선사해주는 메시지는 참 순수하고 티 없이 맑다. 아름다운 음악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마치 꿈꾸는 어린 아이의 평온함을 연상시킨다.

## 1악장

## ALLEGRO MODERATO

피아노 독주가 협주곡 주요 주제를 소개한다.



[1악장 제 1주제]

주제는 매우 간결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이 작은 생각의 파편(破片)이 진행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40여분의 장대한 드라마를 이끌어내게 만드는 베토벤의 천재성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5마디의 짧은 소개 후 오케스트라가 솔로에 의한 파격을 달려며 협주곡의 전형 즉 두 개의 주제를 담백하게 소개한다. 이후 솔로가 다시 등장할 때는 이미 주제는 아름답게 변주되어 있다. 교향곡 제5번 “운명”의 첫 주제와도 다소 닮아 있지만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른데 운명 교향곡에서 보이는 치열하고 전투적인 삶에 대한 집착과는 달리 풍류(風流)적인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하다. 두 번째 주제는 셋잇단 음과 부점 리듬이 서로 엮여 있는 형태로 가벼운 분위기를 이어간다. 독주자의 화려한 손놀림이 일품인 발전부를 지나면 재현부는 곡 처음과 동일하게 독주자의 5마디 소개로 시작된다. 카덴차(Cadenza)는 작곡가 본인에 의해 쓰였으며 그의 다른 협주곡들과 비슷하게 1악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악장에 비해 길고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 2악장

## ANDANTE CON MOTO

베토벤의 음악은 그저 가볍지만은 않다. 아이의 웃음소리 같던 이전 악장의 천진난만한 기쁨 뒤에 이어지는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꿈만 같던 순간을 떠나 우리를 냉혹한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1악장 제 1주제]

수십 명의 현악기가 하나가 되어 유니슨(unison)으로 질문하는 격조 높은 선율에 독주자는 화성이 있

its typical introduction of two themes during a lengthy ritornello of a concerto, Beethoven sets up the presence of the soloist at one brief gentle declaration, a quiet phrase ending on a half cadence—and the orchestra takes care of the rest of the ritornello. That response is also quiet but astonishing, because it seems to come in an entirely unexpected key, though it turns out simply to be a momentarily bright harmonization of the first melody note.

The second movement, accompanied by strings only, has become the concerto's most famous. Its comparison to Orpheus taming the wild beasts with his music was for years attributed to Liszt, though we have since learned that Adolph Bernard Marx first floated the idea in his Beethoven biography of 1859. Even earlier than that Beethoven's student Carl Czerny had suggested that “in this movement one cannot help thinking of an antique dramatic and tragic scene, and the player must feel with what movingly lamenting expression his solo must be played in order to contrast with the powerful and austere orchestral passages.” In this second movement, the orchestra is loud in stark octaves. The piano is soft, flowing, songful, richly harmonized. At the end, after a truly Orphic cadenza—and Beethoven almost persuades us that he invented the trill expressly for this moment—the orchestra has learned the piano's way. Only the cellos and basses remember their opening music, but just briefly, and their mutterings are whispered pianissimo.

In the finale, which takes a charmingly Haydn-esque, oblique approach to the question of how to resume the work after the evocative scene just played, trumpets and drums appear for the first

는 아름다운 구절로 화답해 나간다. 오케스트라는 거칠고 폭발적인 반면 피아노는 조용하면서도 서정적인 인내로 마치 운명의 난제(難題)와 씨름하며 울부짖는 예술가의 내적인 인내를 보는 듯 안타깝다. 이를 두고 음악학자 베른하르트 마르크스(Bernhard Marx)는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간 오르페우스(Orpheus)가 지옥의 정령들을 잠재우기 위해 하프를 타며 부르는 노래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베토벤의 제자 체르니(Carl Czerny) 역시 “이 악장을 들을 때 고대 비극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유니슨이 중세 교회선법 중 도리안(Dorian) 음계를 따르며 레치타티보(Recitativo) 스타일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악장

RONDO (VIVACE)



[1악장 제 1주제]

2악장의 고뇌를 한순간에 불식(拂拭)시키며 어두움을 떨쳐내고 일어서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악장이다. 또한 팀파니와 트럼펫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강력한 음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가 막히다. 하이든의 위트와 재치가 보이기도 하고 슈베르트의 순수한 기쁨이 가득해 보이기도 한다. 론도 형식의 곡으로 반복되는 갤로핑(galloping) 리듬의 흥겨움과 신나는 도약의 선율이 재미있는데 활기찬 에너지의 제스처 가운데 뒤따르는 셋잇단음표로 구성되는 아름다운 선율의 부차주제가 일품이다. 카덴차는 1악장에서 마찬가지로 모두 베토벤이 작곡하였다.

Ludwig van Beethoven —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번호 92

베토벤은 1811년에서 1812년에 걸쳐 이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구상은 1809년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작곡은 1811년 말에 이르러 보헤미아의 휴양지 테플리스(Teplice)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으며, 1812년 5월 완성된다. 초연은 1813년 12월 8일에 빈 대학 강단에서 제6차 대 프랑스 동맹 전쟁 “하나우(Hanau)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부상당한 오스트리아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자선 음악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이 교향곡에서 6번 교향곡과 같은 자연에 대한 묘사, 당시 시대 상황, 또는 연주회 성격 등을 염두에 두는 소위 음악 외적인 작곡 동기에서 벗어나 리듬과 음계를 중심으로 음악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간다. 즉 음악 그 자체의 기쁨을 무곡 리듬으로 표현하면서 고전주의로 회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8번 교향곡에까지 이른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음악 그 자체에서 인본주의 근간의 해법을 찾고자 했던 9번 교향곡에 이르면 그 선

time and produce magnificent sound. Not that this movement is in any way grand; rather, it is still lyrical and witty.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The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is a symphony in four movements composed by Beethoven between 1811 and 1812, while improving his health

행(先行)된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곡에서 베토벤은 5번 운명 교향곡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하여 음악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정직하고 원초적(原始的)인 기본 좋은 리듬과 음계의 제스처들이 이 한 음악에 집대성되어 우리를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이끈다. 음악이 음악 외적인 메시지를 수반하지 않고 본연에 충실할 때 청자에게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탓인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베토벤의 모든 교향곡 중 이 교향곡의 공연 횟수가 가장 많다. 악보의 초판은 1816년 5월에 빈의 슈타이너 출판사(Steiner & Comp.)를 통해 간행되었으며 헌정은 모리츠 폰 프리스 백작(Count Moritz von Fries, 1719~1785)에게 이루어졌다.

1악장

POCO SOSTENUTO – VIVACE

화성의 기본음들로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목가풍(牧歌風)의 첫 소절이 시작되고 곧 이어 중기 기관차의 거친 움직임 같은 역동성이 더해져 힘차게 서주를 채워 나간다. 그의 다른 교향곡들에서는 동기와 주제가 짧지만 대단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데 반해 이 서주는 복잡한 설계 없이 단순 스케일과 화성의 기본음들로 구성되어 있어 언뜻 보서는 의아해 보일 만큼 너무 쉬워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하려는 베토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음악의 기본 즉 음계와 리듬(서양 시문학 운율에 기초한 원초적인 리듬) 자체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볼 수 있다. 장려했던 서주에 마지막에 이르면 마치 살포시 무릎 인사와 눈짓으로 미소를 교환하기도 하는 듯 아가자기한테 바이올린과 목관이 마치 꾀꼬리가 서로 대화하듯 예쁜 리듬을 주고받으면서 제시부를 연다.



[1악장 제 1주제]

플루티가 가벼운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호숫가 오솔길에 그 발걸음을 내딛으면 첫 주제가 본격적으로 기본 좋게 등장한다. 주제는 리듬이 주인 동기 A와 선형적인 동기 B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기 A는 앞서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에서 코다의 팀파니 리듬이다. 그 행복한 주제는 합창으로 이어지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악장 전체를 가득 메운다. 시종일관 반복되는 동기 A의 리듬은 사실 시문학에 사용되는 이중 닥틸(Double Dactyl, ‘장단단(長短短)’격 운율의 변주형태(3:1:2 길이 비율))이다. 국악이 전통 장단에 기초하여 있듯이 서양 음악은 시문학에서 발전된 운율(韻律)에서 그 리듬적 기원을 찾는다. 닥틸은 존 홀랜더(John Hollander)의 시 ‘Gigue’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벤~자민(Ben~jamin), 해~리슨(Ha~rison)” 또는 “암~스텔담(Am~sterdam, 암~스텔담)”을 연거푸 반복해서 말할 때 입술과 턱을 통하여 전해지는 리듬감이 그것이다. 이 신명나는 리듬은 악장 전체를 통틀어 최면을 걸 듯 무한 반복되는데 그 묘한 매력에 우리의 어깨가 쉴 틈이 없다.



[1악장 제 1주제]

in the Bohemian spa town of Teplitz. The work is dedicated to Count Moritz von Fries. At its premiere at the University in Vienna on 8 December 1813, Beethoven remarked that it was one of his best works. The second movement, “Allegretto”, was so popular that audiences demanded an encore. The “Allegretto” is frequently performed separately to this day. When Beethoven began composing the 7th Symphony, Napoleon was planning his campaign against Russia. After the 3rd Symphony, and possibly the 5th as well, the 7th Symphony seems to be another of Beethoven’s musical confrontations with Napoleon, this time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wars of liberation from years of Napoleonic domination.

The opening movement of Beethoven’s Seventh Symphony begins with a lengthy introduction of chords and scales, setting the stage for our musical journey for the next 40 minutes. Devoid of a clearly articulated melody that, conventionally, would be used as a launching point for the exposition and development of the work, the introduction fluctuates between several keys, stirring with an air of anticipation of almost reckless simplicity. Ever so gradually, with a delicious feeling of suspense, Beethoven draws the exposition of the work from the last flickers of the introduction. We are driven forward with a fierce energy and speed dominated by a single propulsive dactyl rhythm. The movement, as is so often the case in the opening movement of a Beethoven symphony, contains the coda that is virtually another development. Beethoven pulls the music to a tremendous climax by holding a crescendo across a tenfold repetition of an obsessive, harmonically off-balance bass that will only resolve during the finale of the work.

두 번째 주제는 비교적 짧은데 바이올린과 저음 현이 캐논(Canon) 식으로 엇갈려 나오는 가운데 내성부의 빠른 패시지가 재미있다. 어두운 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만큼 긍정적인 이 악장은 즐겁게 콧노래 흥얼거리며 사방팔방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처럼 상큼하고 귀엽다. 음악이 주는 이 원초적인 기쁨에 전쟁과 사회 문제로 골치 아픈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 2악장

### ALLEGRETTO

Dactyl 즉 '장단단(長短短)'격의 리듬이 이번에는 장송곡 풍으로 다소 우울하게 다가온다. 복합 세도막 형식으로 이 곡은 이 교향곡에서 가장 느리고 어두워 보이는 악장이지만 초연 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악장이기도 하다. "조금 빠르게, Allegro보다 다소 느리게"라고 알려진 "Allegretto" 빠르기 말은 사실 19세기 이후 영어권에서 음악 용어로 편찬,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인된 경향이 있다. 원어의 뜻은 "조금씩 명랑하게"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악장은 장송곡과도 꽤 거리가 있다. 또한 그의 다른 교향곡의 분명히 느린 빠르기의 악장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아름다운 녹턴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후대에 전체 교향곡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하였다.



[2악장 주제와 첼로의 대선율]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변주곡을 남기고 있으며,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이 악장을 불멸의 알레그레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느린 2박 계통의 패시지가 차분한 노래를 반복하고 나면 전원풍의 평화로움이 클라리넷과 바순에 의해 중반부에 소개된다.



[2악장 중반부 주제]

아쉬운 듯 그리운 듯 긴 숨으로 지그시 눈을 감고 부르는 이 아리따운 노래 후에 다시 처음 장송곡 풍의 주제가 악기별로 교차해 등장하면서 어두운 에너지를 쌓아 가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목청껏 Dactyl 운율을 죽음의 리듬으로 뒤바꾸어 울부짖는다. 전원풍의 곡이 또 반복되고 어두운 기운이 교차되고 난 후, 무엇인가 아쉬움을 토로하듯 거친 숨을 내쉬며 곡을 마무리한다.

# LUDWIG VAN BEETHOVEN

The second movement in A minor has a tempo marking of *allegretto*, making it slow only in comparison to the other three movements. This movement was encored at the premiere and has remained popular since. Its reliance on the string section makes it a good example of Beethoven's advances in orchestral writing for strings, building on the experimental innovations of Haydn. The movement is structured in ternary form. It begins with the main melody played by the violas and cellos, an ostinato dactyl rhy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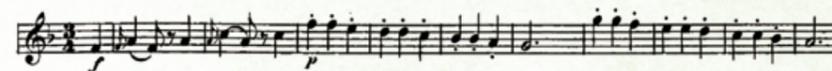
The third movement, the scherzo, consists of two sections: the opening and the trio. Beethoven requests the tempo of the opening as *presto* and the trio as "very much less fast." The ambiguity of the composer's instructions was certainly intentional. Although sharply defined and superbly controlled, the entire movement mocks the form of the scherzo, which is itself a form of music designed to be a joke. Normally, the opening section of a scherzo returns after the trio, and the movement concludes. The trio attempts to make a third appearance but is instantly swept away as the orchestra closes out the movement.

The work's finale unleashes musical energy to an extreme level. A truly wild and swirling motion ties together the whole work, creating one central musical idea tightly controlled with best rhythmic accuracy. New themes are introduced and propel the music forward, but the movement ends with a recall of the opening theme at the start of the symphony. The entire symphonic experience concludes with a content feeling of musical satisfaction and resolution that Beethoven serves all too well.

## 3악장

### PRESTO

언제 그랬냐는 듯 2악장의 음울함을 단번에 씻어버리고는 Tribach 운율 즉 '단단단(短短短)'격의 짧고 빠른 반복적인 리듬이 뇌세포를 격하게 자극하며 스케르초 춤곡을 시작한다.



[3악장 스케르초 주제]

2마디의 갑작스런 합주 후 4마디 간격의 대칭성과 경쾌한 리듬이 등장하여 곧장 어깨춤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중간 중간 깜짝깜짝 보이는 엇박의 강한 제스처와 비대칭적인 구조가 우리의 지성을 마구 헛갈리게 하는데 이를 구사해내는 베토벤 특유의 위트가 참 재미있다. 빠른 스케르초가 정신 없이 지나고 나면 난데없이 등장하는 리듬감 없는 선형적 합주가 느릿느릿 여유 부리다가 또 깜짝 스케르초가 반복되면서 재미있는 음악놀이를 즐긴다. 코다에서는 트리오의 여유가 잠깐 회상되지만 이내 강렬한 투티로 곡을 서둘러 끝마친다.

## 4악장

### ALLEGRO CON BRIO

재미있는 3악장의 음악유희가 끝나 바쁜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2악장 죽음의 Dactyl 리듬이 1악장에서의 변주보다 더 빠르고 경쾌한 축제의 리듬으로 변형되어 폭발한다.



[4악장 주제]

바커스(Bacchus) 신의 '술의 향연'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자극적이고 경쾌한 이 축제의 리듬이 우리의 숨을 주저함 없이 혈떡이게 만드는데 싱코페이션(Syncopation, 악박에 예기치 않게 강한 음이 교차되는 형태)이 정박의 패턴과 불규칙적으로 어우러져 정신없이 우리의 시간관념을 빼앗는가 하면 심육분음표들이 인지하기도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린다. 또한 소절 소절의 전환이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고집스럽게 반복되는 부점 리듬의 흥겨움이 더해져 축제를 더욱 뜨겁게 고조시킨다. 불규칙성과 비대칭성을 빠른 템포 안에서 한데 뒤섞어 베토벤만의 어휘로 경쾌하게 풀어낸 것이 매력적인 악장이다.

글: 박희정 (지휘자/작곡가)



## 심포니송의 프로들



<b>예술감독</b>	함신익			
<b>바이올린</b>	송지원	박진형	김문정	김민지
	김민하	김영은	김정현	김지연
	김초아	김희영	도예성	문수빈
	박지윤	선유란	오하은	옥영미
	이지현	전지은	최주은	홍예슬
	홍유래	Kendall Grady		
<b>비올라</b>	박하은	김예림	안예림	윤소은
	장윤정	정민	조혜민	홍진화
<b>첼로</b>	이경미	박연주	오소연	이혜인
	정다인	정혜솔	허규희	홍지희
<b>더블베이스</b>	조형욱	고부현	강선률	문지수
	윤영진			

<b>플루트</b>	김소희	하종수		
<b>오보에</b>	윤민규	박수진		
<b>클라리넷</b>	우희수	김민찬		
<b>바순</b>	김윤지	김지혜		
<b>호른</b>	Edward Peeters	권영진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b>팀파니</b>	Sheng-Wen Lee			
<b>크리에이티브 팀</b>	신현숙	유소정	이창훈	최윤정
	한지민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 The Wave

# 4.20

SAT 17:00

2024.4.3<sup>Wed</sup> - 4.28<sup>Sun</sup>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심포니송

### Symphony S.O.N.G

**지휘** Conductor **함신익** Shinik Hahm

**피아노** Piano **김준형** Junhyung Kim

## PROGRAM

### 베토벤

L. v. Beethoven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G장조 Op.58

Piano Concerto No.4 in G Major, Op.58

### 베토벤

L. v. Beethoven

### 교향곡 제7번 A장조 Op.92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주최 예술의전당



협찬 Hanwha

후원 KBS



함신익

©Kumho Cultural Foundation



기준형

TSE 와 함께하는  
함신의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V

10 SYMPHONY SONG  
10TH ANNIVERSARY  
2014-2024

함신의  
ORCHESTRA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

#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비교용 피리프루자



베토벤과  
말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말리 | 교향곡 제5번 '아다지에도'  
Mahler | Adagietto from  
Symphony No. 5 in c# minor

베토벤 |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Beethoven | Soprano Scene and  
Aria 'Ah! Perfido'

말리 | 교향곡 제4번  
Mahler | Symphony No. 4 in G Major

##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지휘 함신익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LOTTE CONCERT HALL yes24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SEBONG FST TSE DSK K2Webtech GOLFZON 화광교역(주) 코스모스약기 시애틀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DOUBLE THE BRAHMS



첼로 주연선 바이올린 김다미

브람스  
페스티벌



지휘 함신의

브람스 | 이중 협주곡  
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for Violin and Cello

브람스 | 세레나데 제1번  
Brahms | Serenade No. 1  
in D Major

06.27

THU 7:30PM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LOTTE CONCERT HALL yes24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SEBONG FST TSE DSK K2Webtech GOLFZON 화광교역(주) 코스모스악기 시대문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1.1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영웅적 신년음악회  
Heroic New Year Concert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김응수

02.22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Schoenfield & Smetana

- 쇤펠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발레
- 지휘 함신의, 피아노 김태형

03.2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Shostakovich & Mendelssohn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한수진

04.19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베토벤과 베토벤

Beethoven and Beethoven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김준형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베토벤과 말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 말리 교향곡 제5번 올림다단조 중 '아다지에도'
- 베토벤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 말리 교향곡 제4번 사장조
- 지휘 함신의, 소프라노 양귀비



## 2024 마스터즈 시리즈에

SYMPHONY S.O.N.G 2024 MASTERS SERIES

함신의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 당신을 초대합니다

06.27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브람스 페스티벌  
Double the Brahms

- 브람스 이중 협주곡 가단조
- 브람스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주연선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Remembering Dvořák

- 드칭 웬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 드보르자크 '전설'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박진수

10.21

MON 7:30PM  
LOTTE CONCERT HAL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Special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단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유영욱

11.28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박종해

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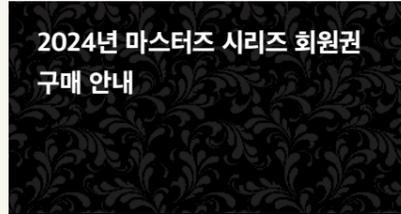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소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함신의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과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4월 30일까지 구매 시	10%	R석 6회	-600,000원 ▶	540,000원
		S석 6회	-420,000원 ▶	378,000원
		A석 6회	-300,000원 ▶	270,000원



###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논현동 EG빌딩)  
B1 심포니송

###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술이 힘이다!

##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터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터, 바이오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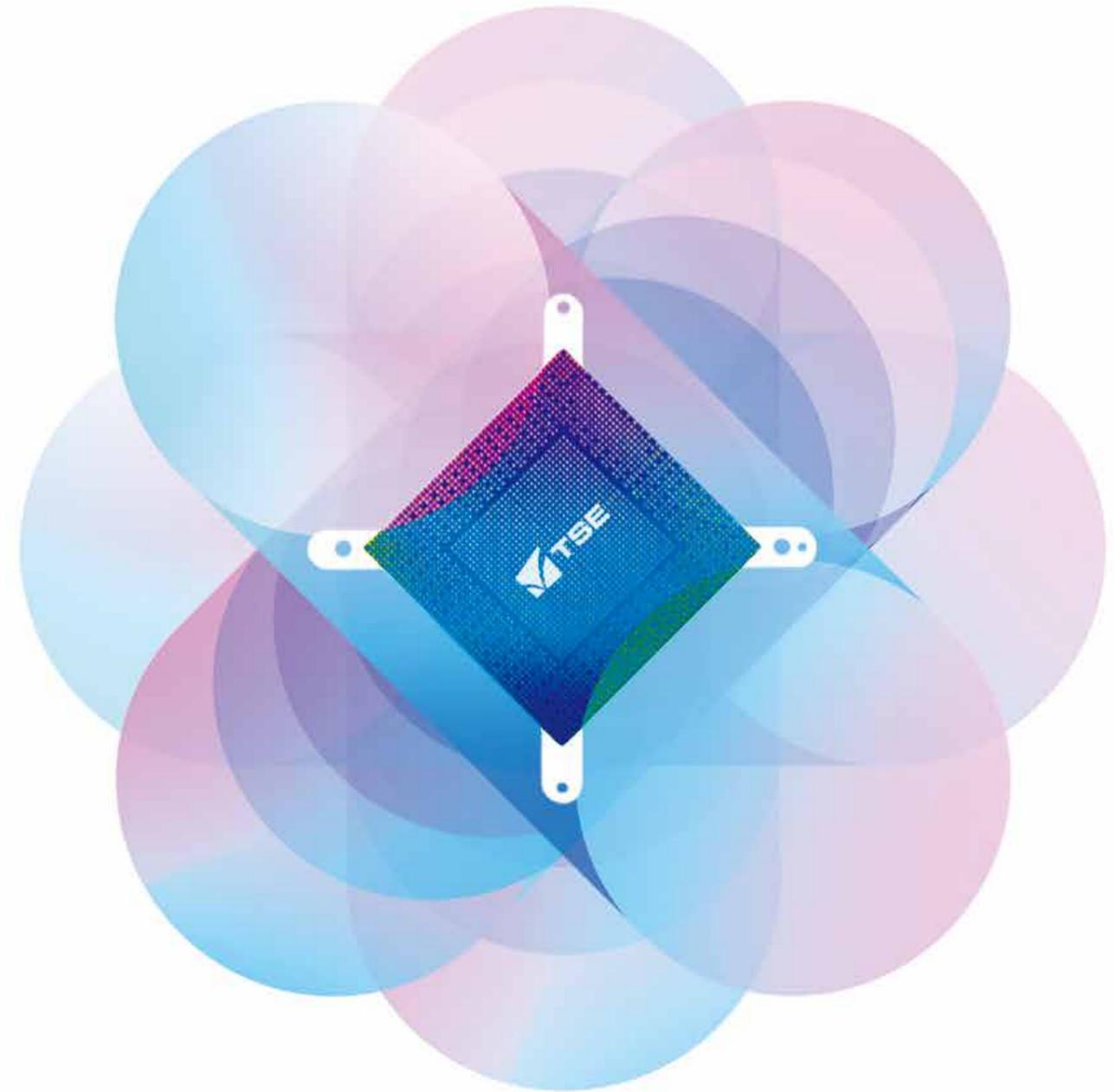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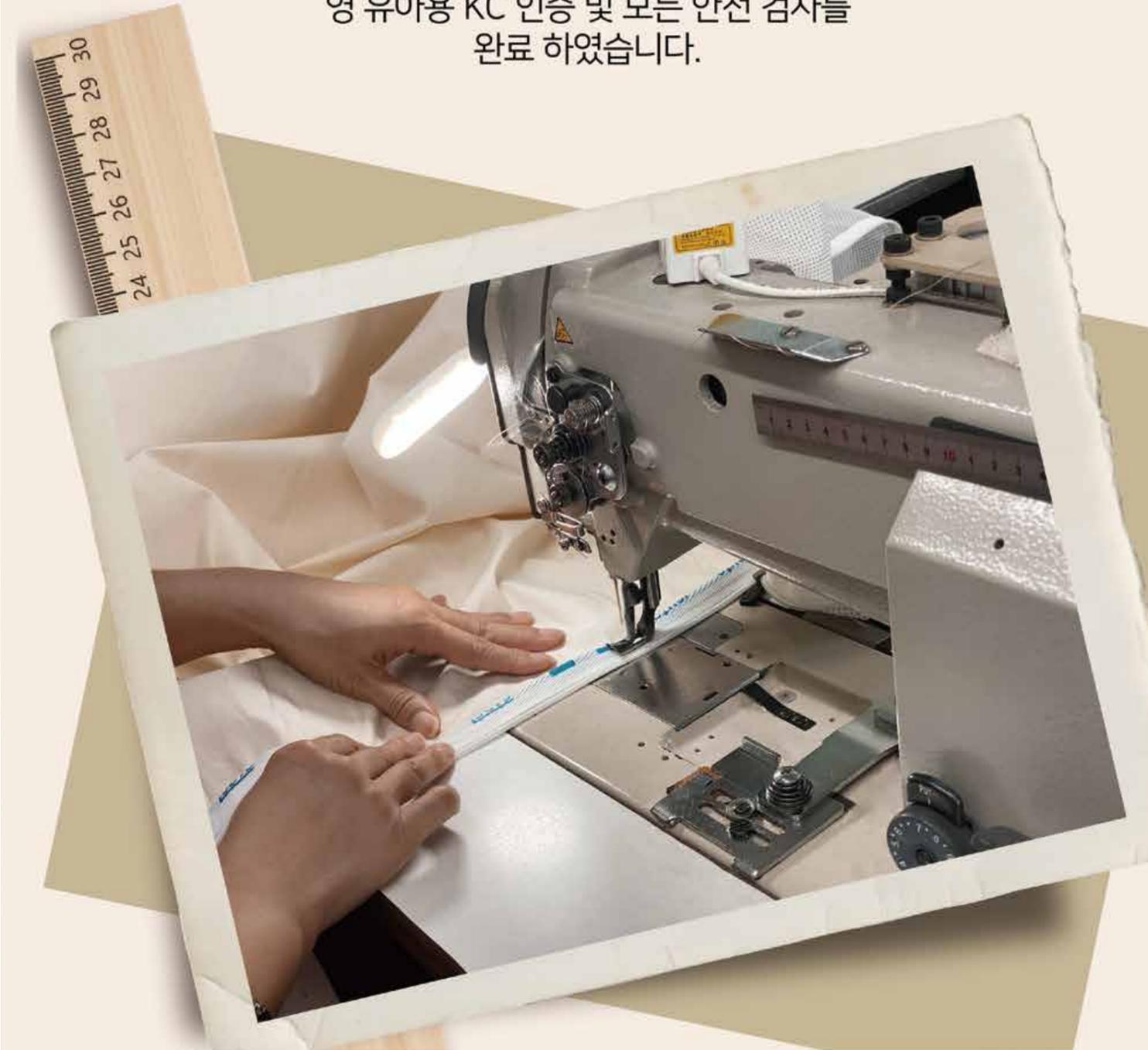
## GOLFZON NEWDIN GROUP



##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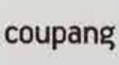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 OFFLINE SHOP



###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http://www.underpressure.co.kr)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